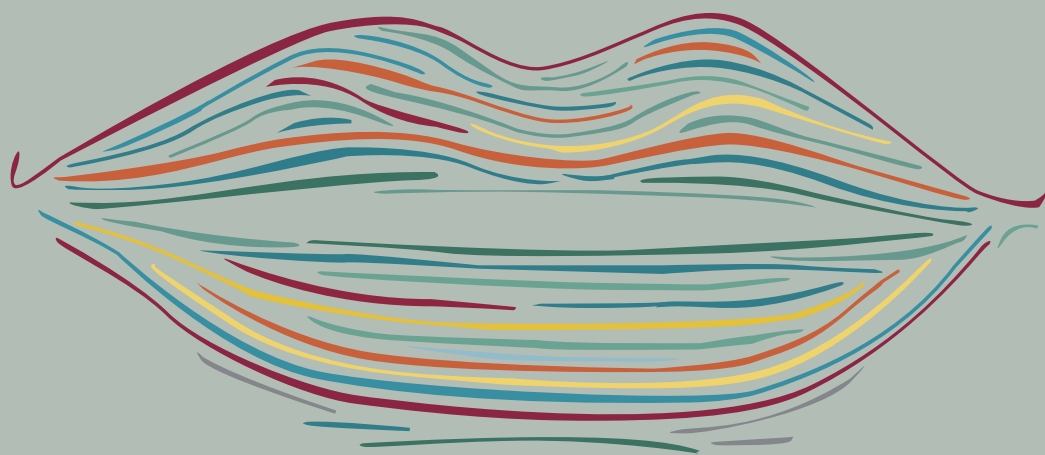


세플러<sup>+</sup>원

Vol. 66 / Autumn 2021



**MOUTH**

**SCHAEFFLER**

# #Taste of happiness 'MOUTH'



Ansan

우리의 얼굴은 각자 모두 다릅니다. 자신만의 이목구비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어우러집니다. 이목구비는 자신의 정체성이자 소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세상과 잘 소통하기 위해, <세플러+원>은 1년 동안 '이목구비'를 주제로 각 사업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맛, 입'이라는 테마로 안산을 방문했습니다. 봄에는 '귀'를 테마로 서울사무소를, 여름에는 '눈'을 테마로 창원연구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며, 겨울에는 '코'를 테마로 전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고운 말과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를 통해 더 지혜롭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플러+원> 인터뷰 코너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뤄졌음을 알립니다. <세플러+원>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세플러코리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플러+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일 2021년 10월 15일(통권 제 66호)  
 발행인 이병찬  
 편집인 민유정  
 발행처 서울시 중로구 종로 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기획·디자인 피플페이지(대표전화 02.6674.0111)

# Contents



- 6 **Theme Outside**  
라떼로 달리는 말(言)에서 내리는 방법
- 10 **Theme Inside**  
모두를 이롭게 하는 공감적 대화
- 14 **Theme Graphic**  
나는 아재일까? MZ세대 신조어 탐구생활
- 18 **Plus Info**  
입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말'



- 20 **특별한 하루**  
지금의 내 손을 기억하세요!
- 24 **추억의 재구성**  
세플러와 함께 땀 흘린 소중한 시간
- 28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의 성과를 위해 언제나 소통합니다
- 32 **요즘 취향**  
바야흐로 지금은 '디지털 전성시대'



- 38 **무엇이든 말해줄래요**  
업무 효율을 높이는 '대화의 기술'
- 40 **에버그린**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에버그린 9기
- 42 **숫자로 보는 사회공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 실현
- 44 **나를 채우는 여행**  
아이들을 위해 떠난 오키나와



- 48 **세플러 공모전**  
말풍선에 담긴 상상력
- 52 **Schaeffler Headline**
- 55 **Thanks & Quiz**

### 세플러 속의 다양한 말이 들리나요?

임직원들의 말이 모여 세플러의 하모니를 만듭니다.

성과를 축하하는 칭찬의 말,

서로를 다독이는 위로의 말,

더 잘할 수 있다는 응원의 말까지

더 나은 우리가 되기 위해 건네는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

오늘도 세플러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 Theme Info





## 라떼로 달리는 말(言)에서 내리는 방법

“나 때는 말이야”를 내뱉지 않아도, 나이가 MZ세대에 속해 있어도, 당신은 꼰대일지 모른다. 언어는 인격이기에 꼰대 같은 언어를 쓴다면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신경 써야 한다. 혹시나 내 말(言)이 라떼로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글 강진우(문화 칼럼니스트)

### 말하기 전에 경청하라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화를 하고 있지만 상대의 생각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자신의 논리를 전달하는 데 치중할 뿐이다. 이런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가 과연 있을까.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이 아닌 '경청'이다. <타인의 속마음에 닿는 대화>를 쓴 실리코넬리 최고의 UX(User Experience) 리서처 히먼아 벤고에체아는 “경청은 진심을 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강조한다. 공감적 경청을 통해 상대에게 관심과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주면 속마음 섞인 '진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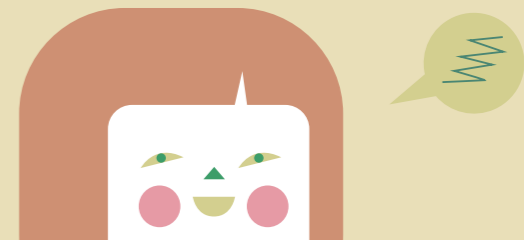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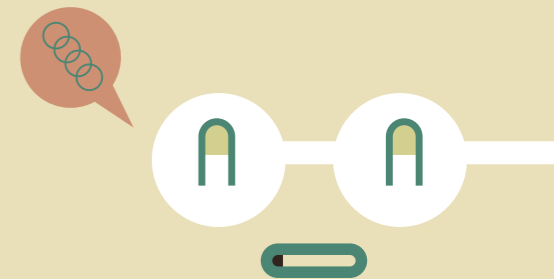
제대로 경청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대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당신이 어떤 진심을 말해도 이 대화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거야'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의 진솔한 생각을 들은 뒤 전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상대는 지금까지 자신의 말을 성의껏 들어준 당신이기에, 당신의 말을 더욱 귀여겨듣고 자신에게 힌트가 되는 포인트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의견에 동조하라는 것은 아니다. 경청과 동조는 엄연히 결이 다르다. 이야기를 잘 듣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준다면, 무턱대고 “그건 아니지!”라고 억박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지속적 대화를 이끄는 '연결형 질문'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대화의 두 번째 요소는 '질문'이다. 인간의 내면을 유려하게 표현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그림 작가 장 자크 상페는 “대화에 능한 사람은 대체로 두 가지를 잘한다. 하나는 감탄, 다른 하나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질문은 상대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자 말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질문법은 '연결형 질문'이다. 특정한 대답, 예컨대 '예' 혹은 '아니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단절형 질문'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두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상대가 “이번 일 참 힘들지 않았나요?”라고 묻는다면, 답은 으레 “예”가 된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라도 “이번 일을 해보니 어떤 점이 힘들었나요?”라고 묻는다면 상대방의 생각을 한층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대화 중간중간 재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라는 의미 같은데, 제대로 알아들었나요?”라고 질문 하자. 모호한 지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의 지름길이다. 이를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이해하거나 상대의 생각을 마음대로 넘겨짚는다면 순식간에 이야기가 끊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가 지금까지의 경청과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까지 다다르면 상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거 봐, 역시 꼰대였어.'





### 대화를 끝내는 나쁜 호기심

꼰대들은 궁금한 게 많다. 특히 지금의 대화와 맥락이 맞지 않는 것들을 궁금해한다. 무턱대고 상대의 나이를 묻고, 자신이 더 많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반말을 내뱉는다. 그 순간 동등한 위치에서의 진실된 대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면 양반이다. 어느 순간 연애, 결혼, 취직, 출산, 육아 등 상대방이 짜증을 낼 만한 주제를 귀신같이 찾아내고 질문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긍정적 질문이 아닌, 질문자를 꼰대라고 확정 짓게 만드는 최악의 질문이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호기심은 발휘하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다. MZ세대라고 해서 상대의 사랑 이야기와 인생사가 궁금하지 않을 리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친해지려면 서로 잘 알고 있어야지!"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꼰대적 질문으로 인해 상대의 마음이 닫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 꼰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하자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은 자신이 꼰대가 아니라고 믿는 우리 모두에게 통용된다. 가벼운 말로 주변에 상처를 입히는 꼰대들을 가만히 관찰해보자. 본인이 꼰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아니, 자신이 꼰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나는 꼰대가 아니지!'라고 생각하면서 유머러스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바로 이 점이 상대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사실 꼰대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화하려  
드는 내 안의 나쁜 자아,  
이것이 바로 꼰대의  
실체다.



우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나이가 어려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옷을 입고 있어도, IT 기기를 자유자재로 다루어도 자신의 아집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든다면 그 사람은 꼰대다. 내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그 사람도 꼰대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꼰대는 단순히 기성세대를 비하하기 위해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줄 모르고 제멋대로 가르치려 하는 그 순간 나도, 당신도, 꼰대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지금껏 이야기한 대화의 기술들을 끊임없이 되새기자. 이 정도만 실천해도 꼰대라고 욕먹지 않기에 충분하다.



# 모두를 이롭게 하는 공감적 대화

공감과 존중은 말의 힘을 증폭시킨다. 한병지 상무는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와 발전적 상생을 실현해왔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플러+원>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엔진시스템사업부 한병지 상무입니다. 35년 동안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개발본부에서 엔진과 파워트레인 개발 업무를 진행했고, 2019년 1월 1일부로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했습니다. 오랜 연구원 생활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전략 수립, 기술 향상,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비즈니스 협업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말하는 즐거움’이 이번 호의 주제인데요. 상무님은 말의 어떤 점에 즐거움을 느끼시나요?

말을 통해 지식과 생각,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입니다. 나아가 말은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죠. 말 한마디에 실의에 빠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멋진 연설에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움직입니다. 날숨과 성대의 떨림으로 크고 작은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즐겁습니다. 그렇기에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저를 둘러싼 모든 이들에게 긍정과 희망이 담긴 말을 전하기 위해 매 순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말의 힘을 절감했던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개발본부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새로운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었는데요. 4~5년 동안 기획, 상품, 재경, 생산, 구매, 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조정해야 비로소 하나의 엔진이 탄생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대화가 오가죠. 만약 말이 없었다면, 인간은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의견 충돌과 다툼이 있더라도, 말을 통해 나의 생각을 전하고 상대의 생각을 들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게 바로 말의 힘이 아닐까요?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는 가장 효과적인 마법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일상과 조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병지 상무  
엔진시스템사업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감적 경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듣기만 한다고 해서 공감적 경청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여겨듣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맞장구, 표정, 몸짓, 자세, 억양 등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들을 동원해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진심이 말을 통해 전해지고, 나도 상대방에게 진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동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넌 틀렸어’라고 대꾸하면 안 됩니다. ‘틀림’과 ‘다름’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동료와 나는 다른 것일 뿐,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대화를 할 때는 틀렸다는 표현 대신 다르다는 말을 사용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들 속에서 보다 나은 방향을 찾고 합의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대화에 나서면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며,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올가을과 겨울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가요?**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디뎌야 합니다. 먼저 올해 초에 세운 계획을 돌아켜보고, 지난날을 반추해 부족한 부분을 꼼꼼하게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작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방면에 걸친 소통이 부족했던 만큼, 곧 다가올 ‘위드 코로나 (With COVID-19) 시대’에는 한층 적극적으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플러코리아 사우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와 선배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먹음직스러운 ‘파이(PHI)’를 전해드립니다. 파이는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 프로(Professional)’, ‘따뜻한 인간성(Humanity)’, ‘장점을 극대화하는 이미지메이킹(Image making)’의 줄임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소화한다면 세플러코리아의 미래는 그 어느 회사보다도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간식으로 파이 한 조각 어떠신가요?(웃음)

# 나는 아재일까? MZ세대 신조어 탐구생활

눈만 뜨면 생겨나는 신조어, 이렇듯 우리는 신조어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단어만 봐서는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신조어를 통해 인싸력 혹은 아재력을 테스트해보자.

2021 신조어 능력 평가  
(신조어 영역)

다음 신조어의 뜻을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p>●</p> <p><u>머선129</u></p> <p>무슨 일이야?</p>	<p>●</p> <p><u>오늘아눔</u></p>	<p>●</p> <p><u>코로나 케이션</u></p>	<p>●</p> <p><u>억텐</u></p>
<p>●</p> <p><u>인스피리언스</u></p>	<p>●</p> <p><u>완내스</u></p>	<p>●</p> <p><u>꾸꾸꾸</u></p>	<p>●</p> <p><u>쌈파서블</u></p>
<p>●</p> <p><u>싫존주의</u></p>	<p>●</p> <p><u>혼바비언</u></p>	<p>●</p> <p><u>쫂쫂다리</u></p>	<p>●</p> <p><u>얼죽코</u></p>



## 코로나 케이션

코로나 바이러스와 방학(Vacation)의 합성어로 코로나 사태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이 기간을 방학에 빗대어 만들어진 신조어다. 등교 수업이 다시 시작되긴 했지만 이후 집단 감염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재확산 우려로 다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현상에서 생겨났다.



## 인스피리언스

집 안을 뜻하는 'Indoor'와 경험을 뜻하는 'Experience'가 결합된 말로 밖에서 즐기던 경험을 집 혹은 개인 생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로 꾸며놓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삶을 즐긴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웰빙족과 여유 있는 직장 생활을 즐기면서 삶의 만족을 찾는 다운시프트족과 비슷하지만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 알쏭달쏭한 신조어 정답 풀이

3개 이하 아재 동료는 언제나 환영이야!  
5~7개 아재가 의심되긴 하지만 일단 통과!  
8~10개 울~ 좀 신세대인 듯?!  
11개 이상 신인류가 나타났다



## 쌈파서블

'매우 가능하다'라는 뜻의 신조어로 이 신조어는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기분과 상태를 표현하는 '쌈'에 영어 '가능한(Possible)'을 합친 말이다. '쌈'은 매우, 완전히, 당연히, 무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신조어로 '할 수 있는'이라는 뜻의 영어 'able'을 합친 '쌈에이블'로도 쓰이고 있다.



## 싫존주의

'싫다고 하는 것을 존중해달라'는 뜻으로 '싫은 것은 싫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MZ세대의 특성에서 비롯된 신조어다. '싫은 것은 이유가 없고, 굳이 설명하라고 하지 마라', '그냥 나의 싫은 감정을 존중해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 혼바비언

'혼밥'과 '~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영어 접미사 'ian'을 합성한 신조어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혼밥러'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혼밥'이 하나의 가치로 자리 잡아 '혼바비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오늘아눔 오(우) 놀 줄 아는 농인가  
억텐 억지 텐션

완내스 완전 내 스타일  
꾸꾸꾸 꾸며도 꾸질꾸질

쫂쫂다리 조금씩 작은 양을 모음  
얼죽코 얼어 죽어도 코트



## 신조어, 아재일까? 인싸일까?



안산공장 K\*\*

### 아재와 인싸의 중간, 신조어 사용에 어려움은 없어요!

나이에 비해 신조어를 많이 아는 편이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신조어로 말할 때나 인터넷 댓글을 볼 때도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신조어 하면 장례식장에서 겪은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다른 빈소에서 어린 학생들이 '상고빔'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상고빔'이 아니라 '삼고빔'이더라고요. 뜻을 알고 나니 조금 씩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언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언어 혹은 단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고유의 한글을 변형시키는 것보다 오랫동안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튜닝의 끝판왕은 순정이니깐요.

### 나름 인싸였는데, '점메추'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신조어를 완벽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나름 인싸였는데, 점점 아재가 되어가는 것이 아쉽네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이전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여자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자꾸 '점메추'라고 하길래 '점메추 뭐지?'라고 한참을 고민하다 "뭐가 자꾸 추하다는 거야?"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속어인 줄 알았거든요.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점심 메뉴 추천해줘'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신조어 사용을 반대하거나 안 좋게 보진 않습니다. 단, 재미를 위해 적당히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용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산공장 P\*\*



안산공장 C\*\*



### 신조어로 여러 세대와 재미있게 소통해봐요!

종종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라는 게시글을 보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내용을 보니 저도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나는 문어글이 하나 있는데 "카카오톡 메시지로 생선 그림을 보내고 답을 달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을 보니 생일 선물을 뜻하는 사진이더라고요. 과거 어른들 세대는 사자성어로 뜻을 간단히 표현했는데, 점차 줄임말이 사자성어를 대체하고, 나아가 지식이나 교양보다는 관심사가 같은 그룹을 구분 짓는 듯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여러 세대와 소통하는 노력을 한다면 영어보다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부터 신조어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 입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말'

예쁜 말은 귀를 행복하게 하고,  
친절한 말은 상대의 하루를 바꾼다.  
입으로 전하는 말과 관련한 명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진정 듣고자 하는  
말을 해라.

유재석 MC 겸 개그맨

친절한 말은 짧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무궁무진하다.

테레사 수녀



진정한 응변은 필요한 말을 전부  
말하지 않고 필요치 않은 것은  
일절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 로슈코프 작가



좋은 말의 가치는 크지만  
드는 비용은 저렴하다.

조지 허버트 종교 시인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발타사르 그라시안 작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각할 여유가 있거든  
그것이 말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말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앙리 드 레니에 시인 겸 소설가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결코 하지 않고 장점을  
들추어내는 데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 정치인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채옹 서예가

누구도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뜻하는 바를 모두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존 애덤스 작곡가

가장 곤란한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알랭 철학자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

솔론 정치가 겸 시인

누구도 너에게 "너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너도 못할 거야"라고 말하고 싶어 해.

영화 <행복을 찾아서> 中

# 지금의 내 손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주 잡은 두 손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추억하라는 의미로 손 모양 석고 방향제 키트를 임직원들에게 보냈다.



손 모양 석고 방향제 키트는 석고의 성질을 활용해 사랑하는 사람과 맞잡은 두 손을 한 번에 본을 뜰 수 있는 키트다. 상세 설명과 동영상 통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키트로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것이 특징. 또한 만들기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관한 과학 상식과 체험의 원리를 알려주는 교육 동영상을 제공해 학습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완성품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손색없고,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길복문 선임연구원**  
벨트&체인  
드라이브시스템 BU 엔지니어링

**긴장과 책임감이 만든 예쁜 손**  
하루하루 궁금한 것이 많아지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섯 살 딸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내 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딸에게 손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했더니 책임감을 갖고 손을 넣고 끝까지 버티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김태철 과장**  
벨트&체인  
드라이브시스템 BU 영업

**설렘과 행복의 시간**

요즘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들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소통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체험을 통해 아이가 설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박성원 과장**  
HR 안산

**원하는 대로 만들어봐요!**

다른 분들과 다르게 두 딸과 함께 손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두 딸의 아주 작은 손을 완성할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둘째 아이가 알지네이트에 손을 넣는 것을 무서워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과 무엇인가를 함께 만들고, 그 시간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 세플러와 함께 땀 흘린 소중한 시간

'SCHAEFFLER'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축구장을 누빈 조병성 기사. 그리고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킨 동료들과 축구에 대한 이야기.



안산공장 축구 동호회의 두 번째 유니폼입니다. 이 유니폼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열심히 공을 찼죠. 지금은 새로 맞춘 유니폼을 입고 뛰지만, 간간이 이 옷을 펼쳐 보며 젊었던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동료들과 함께 상대의 골문을 향해 내달릴 때,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축구와 이 유니폼이 제게 ‘활력소’인 이유입니다.”

조병성 기사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 동료들과 나는 건강한 추억

모두들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안산공장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에서 일하고 있는 조병성 기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다니다가 1996년 10월 세플러코리아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성의 창고에서 올라오는 자재가 계획에 맞게 배송되었는지 확인하고 생산 공정별로 자재를 분류, 불출합니다. 더불어 저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잘 출하되도록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좀이 쑤시죠. 그래서인지 동료들과 함께 즐겼던 공장 체육대회와 산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땀 흘리면서 모르는 사우들과도 얼굴을 익히고 친한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면 '안산공장은 하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세플러코리아 가족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동호회 활동 덕분에 전국의 사우들과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쉽게도 체육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기차기, 볼 트래핑 등을 영상으로 찍어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공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볼 트래핑에 도전했고,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소정의 상품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져서 동료들과 함께 마음껏 운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0여 년을 함께한 ‘제2의 동료’

저는 모든 운동을 좋아하지만, 그중에서도 축구를 가장 사랑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축구팀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공을 차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우들과 함께 축구 동호회 결성에 나섰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30여 명의 사우들이 모였고, 2002년 9월 14일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니폼을 맞췄는데, 오늘 들고 온 이 옷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등에 우리 회사를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SCHAEFFLER’라고 써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2009년 3월 14일에 이 유니폼을 받아 최근까지도 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지금은 군데군데 떨어



지고 낡았지만, 저에게는 지난 10여 년을 함께해준 ‘제2의 동료’ 같은 유니폼입니다.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세플러코리아 가족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2005년 창원에서 우리 공장, 창원공장, 전주공장, 서울사무소의 축구 동호회 4팀이 모여서 교류전을 시작했구요. 이후로 전주, 서울 등으로 옮겨 다니며 동료애를 다졌습니다. 축구 동호회 덕분에 전국의 사우들과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유니폼과 함께했으니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 행복은 일상에 있습니다

세플러코리아와 보낸 26년을 돌이켜보면, 고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전 국민이 힘들던 IMF 외환 위기 때에도 굳건히 버티며 직원들과 가족을 보듬었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니 든든하고 고마울 수밖에요. 그만큼 저도 회사를 믿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 4년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저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회사와 동료들에 대한 예의이자 보답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세플러코리아에서 26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몰입하면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플러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이 행복과 함께 앞으로의 직장 생활을 해나간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 최고의 성과를 위해 언제나 소통합니다

원활한 소통은 조직에 시너지 효과를 불러온다. 안산공장  
치공구서비스팀이 굿직한 성과를 연이어 거두는 비결이다.

## 생산 현장의 팔다리를 관리하다

안산공장의 생산 설비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450여 종의 치공구와 사출 금형 130여 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모 자재 3,000여 종이 필요하다. 치공구서비스팀은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를 도맡는다. 신운섭 매니저를 필두로 한 5명의 팀원은 총 3개 파트로 나뉘어 업무를 진행한다. 먼저 툴 룸(Tool Room)파트는 치공구를 가공 및 수정하는 한편 생산 설비의 고장에 긴급 대응한다. 툴 웨어하우스(Tool Warehouse)파트는 치공구의 구매 및 유지 관리와 생산 현장의 치공구 관련 기술 지원을, 몰드 서비스(Mold Service)파트는 사출 생산 설비에 투입되는 금형의 정비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팀 소개를 마친 신운섭 매니저가 말을 잇는다.

“현장에 있는 생산 설비가 몸통이라면, 저희가 관리하는 치공구와 사출 금형은 팔다리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이들을 잘 관리하고 때에 맞춰 불출해야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죠. 또 유사시 현장 대응과 기술 지원에도 나서야 하기에, 모든 팀원이 업무 시간 내내 긴장의 끈을 바짝 당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Tool Service Ansan





### 국산화로 끌어 올린 생산성

안산공장 생산 전반에 걸친 치공구와 사출 금형을 다루려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춰야 한다. 치공구서비스팀이 안산공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 팀원들로 구성된 이유다. 신운섭 매니저와 팀원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치공구와 사출 금형의 국산화에 힘쓰고 있다. “기존에는 치공구와 사출 금형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고, 생산 현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부품과 금형의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러 폴리 금형과 코이닝프레스 펀치 국산화에 성공했죠.”

치공구서비스팀의 이러한 노력은 비슷한 사출 금형과 치공구를 사용하는 국내외 세플러 공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 국산화된 코이닝프레스 펀치의 경우, 중국의 IZT공장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치공구서비스팀의 우수한 개발 능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기에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내용을 공유하기에도 좋죠. 이렇듯 저희 팀은 ‘일상 속 활발한 대화’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 열린 대화로 단단해진 팀워크

소수의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소수 정예 팀이다 보니,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별도의 활동을 벌일 여유는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모이기 힘든 상황. 그럼에도 치공구서비스팀은 소통의 연결 고리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다. 틈틈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업무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기본이며, 선배 팀원들은 후배들에게 업무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배 팀원들은 젊은 열정으로 팀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회사에서 활발하게 운영하는 SFM(Shop Floor Management) 시간을 요긴하게 활용합니다. 팀원들과 모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

### ‘문제없는 안산공장’을 만들어가다

공장의 역사가 상당한 만큼, 안산에는 노후화된 사출 금형이 많다. 20년 이상 쓰이다 보니 때때로 성형부, 마모나 피로 파괴가 발생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 치공구서비스팀은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치공구와 사출 금형을 최대한 아껴 쓰는 한편, 쓰임새가 다한 부품을 미리 파악하고 수급해 원활한 생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주 쓰는 치공구와 사출 금형을 중심으로 하는 국산화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회사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각오다. “저희가 관리한 치공구와 사출 금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생산 설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안산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팀원들에게 자주 건네는 한마디

“안녕하십니까!”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힘차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실 분위기가 활기차게 바뀌죠.  
최상운 사원



저희 팀원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수고하십니다!”라고 입버릇처럼 인사합니다.  
신운섭 매니저



선배님들이 인자하셔서 종종 아버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라고 말을 건네면서 조언을 귀담아듣습니다.  
석정원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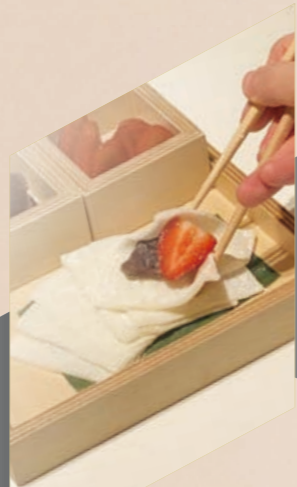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에는 분위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오늘 한잔합시다!”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조만간 그날이 다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강일환 반장



출근하면 늘 “잘 쉬고 왔어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가고,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죠.  
박유호 조장





## 바야흐로 지금은 ‘디저트 전성시대’

밥 한 끼보다도 비싸지만 나를 위한 ‘작은 사치’이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디저트에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카롱, 스콘, 머핀에서 이젠 싸 먹는 딸기 찹쌀떡, 알록달록한 유니콘 수플레, 고소한 옥수수 파이 등 디저트 역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금은 ‘디저트의 전성시대’다.

###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디저트 열기

‘디저트’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식사 후 눈과 입에 호사를 선사하는 사치품 정도로 여겨졌던 디저트가 이젠 완벽한 한 끼 식사는 물론 독립적인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밥 대신 컵케이크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해외여행 중 먹었던 맛을 떠올리며 이국적인 한 입 거리를 찾는 사람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달콤하고, 이색적인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디저트 시장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디저트 사랑은 ‘디저트 배달’ 시장의 성장을 부추기기에 충분하다.



디저트의 인기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한몫 토포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비주얼만으로 입맛을 자극하는 디저트가 게시물로 수없이 올라오며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MZ 세대에게 신선하고 화려한 디저트는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요소로 디저트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는 요소가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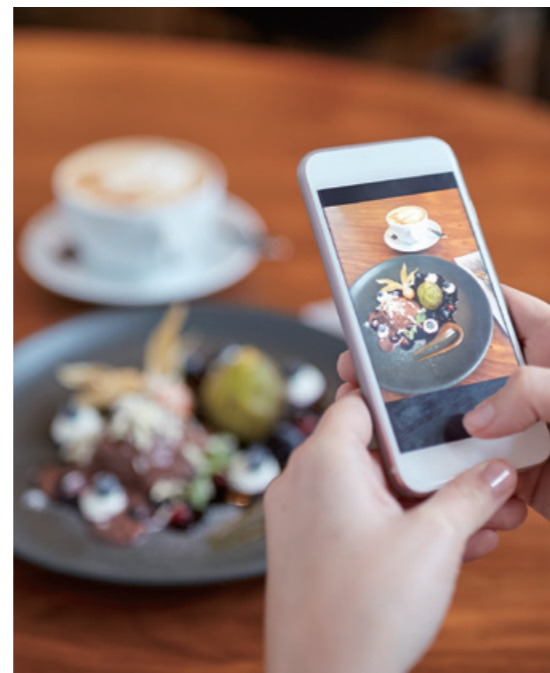
### MZ세대를 잡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MZ세대는 소비의 전 영역에서 대세가 되며 브랜드 지형을 바꾸고 있다. 소통의 중심이자 소비 주축으로 주목받는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각 브랜드 역시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먼 지역을 방문하거나 직접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아도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국 맛집의 디저트들을 즐길 수 있도록 SNS에서 유명한 전국 디저트 맛집들과 손잡고 '온라인 디저트 기획전'을 선보였다. 신세계 백화점은 디저트의 성지라 불리는 강남점에 '파클앤라그', '메종엠오', '리암스케이크리' 등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저트 가게를 열고 있다. CJ 제일제당은 홈 디저트 트렌드와 최근 냉동식품에 대한 인식이 고품질 편의식으로 바뀌며 냉동 간식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신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아워홈도 1인 가구 확산과 가심

비, 소확행 등의 트렌드에 따라 성장하는 냉동 베이커리 시장 수요를 공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산품을 디저트로 활용한 사례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안동 사과빵, 원주 복숭아빵, 성주 꿀참외빵, 춘천 감자빵 등이 대표적이다.

### 고급화되어가는 디저트 시장

가족이나 친구의 생일이면 어김없이 동네 빵집에 들러 케이크를 사곤 했는데 이제는 케이크를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에서 구매하거나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작해주는 1:1 맞춤 케이크를 주문한다. 아이스크림만 하더라도 동네 슈퍼에서 사 먹던 하드와 콘 아이스크림을 넘어 유제품, 프리미엄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렇듯 디저트 시장이 점점 고급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평소에도 만들기 까다로워 비싼 고급 디저트에 속했던 마카롱은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거나 크기를 키우고 화려하게 디자인해 팔기 시작했다. 또 디저트에 아이디어를 추가해 직접 싸 먹는 딸기 찹쌀떡으로 먹는 즐거움을 더하고, 수플레에 솜사탕을 얹어 보는 재미를 주기도 한다. 물론 점점 고급화되면서 밥값보다 비쌌던 디저트의 가격이 더욱 비싸지긴 했지만 소비자들은 디저트 구매에 절대 주춤하지 않는다. 자신의 취향에 맞고, 확실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한다면 말이다.



### 요즘 취향 코멘트



#### 맛+건강! 복숭아 그릭 요구르트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아이들과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그릭 요구르트에 복숭아를 넣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넣고 싶은 과일을 넣어 먹으니 그릭 요구르트를 더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 핫 키워드가 건강과 면역이잖아요.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복숭아 그릭 요구르트가 단연 최고라 생각합니다. 맛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용미정 과장**  
Finance & IT  
관세



#### 요즘 대세는 무화과!

요즘 '대세 디저트'가 복숭아에서 무화과로 옮겨가는 듯합니다. 계절의 특성으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숭아와 관련한 디저트가 많이 나왔는데,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무화과 디저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올가을은 제철 과일인 무화과로 만든 디저트 한 입으로 소확행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석렬 대리**  
오토모티브 시스템  
선형개발팀



#### 겉바속촉 스콘의 매력

단것을 좋아해 식사 후에 항상 디저트를 먹습니다. 커피를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겉바속촉(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스콘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최근 회사에서 나름 스콘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성장기인 아들에게 최대한 단것을 안 먹이려고 노력 중인 반면 저는 단맛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 아들 몰래 먹다가 자주 걸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아들, 이건 매운 거야"라며 넘어가곤 하네요.



**박지환 과장**  
공장구매 안산



#### 대중탕 하면 떠오르는 바나나 우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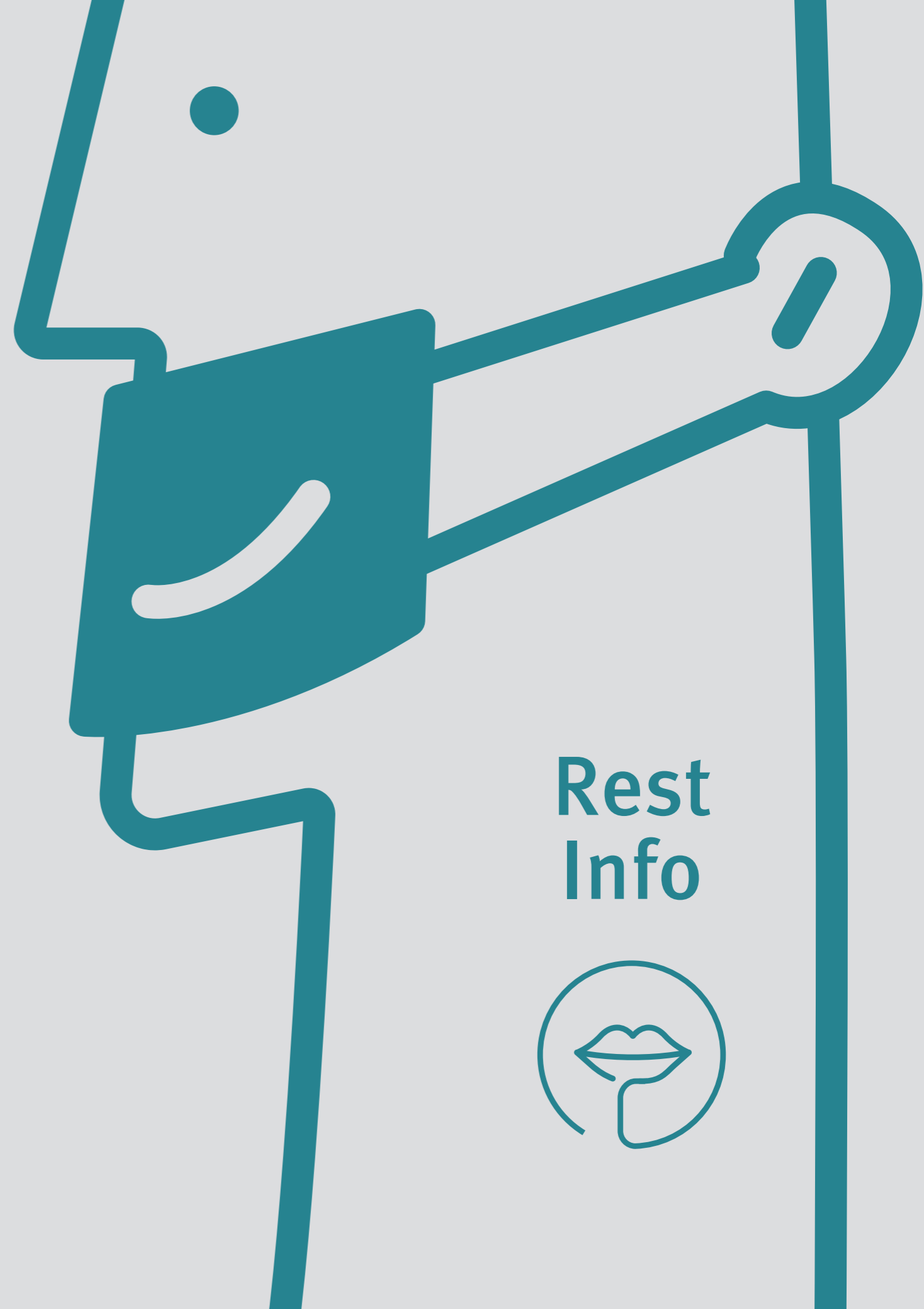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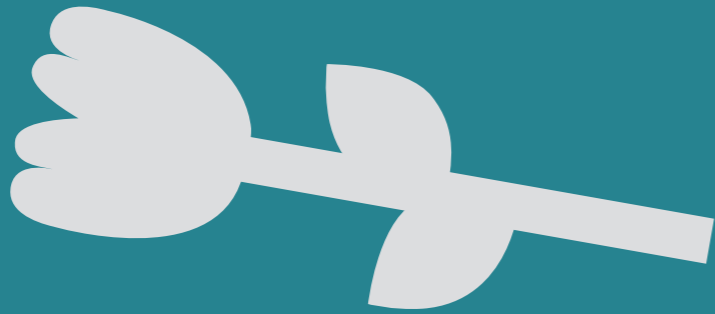
저의 최애 디저트는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대중탕에서 한 번쯤 마셔봤을 똥똥이 바나나 우유인데요. 바나나와 우유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맛의 조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추억'이 있어 더욱 좋죠. 아버지가 대중탕에 갈 때면 어김없이 바나나 우유를 사 주셨거든요. 요즘은 아내가 좋아해서 자주 마시네요.



**장호길 대리**  
생산계획 엔지니어부  
세그먼트

**일상의 아름다운 말들이 들리시나요?**

우리는 말을 통해 행복을 전하고,  
위로를 건네며,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말로 일상을 채워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 Rest Info





## 업무 효율을 높이는 '대화의 기술'

모든 분야가 디지털화되는 4차 산업혁명 기류 속에서 오히려 인간 본연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직무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누구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싸우거나 분노하지 않지만 승자가 되는 '대화의 기술'이 직장인의 필수 덕목이다.

### 1

####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쿠션 언어'

쿠션 언어 역시 상대방과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충격을 흡수해 딱딱하게 전달될 수 있는 말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스피치 기법이다. 쿠션 언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느낌을 전달해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고 친밀감과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해줄 수 없을 때, 혹은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사용하기 적합하다. 쿠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고 싶은 말 앞에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면", "실례가 안 된다면" 등 우리가 평소 공손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붙이면 된다. 그럼 거절의 의사 역시 보다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다.

### 2

#### 대화를 논쟁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하지만'이라는 대화를 파괴하는 단어 대신 대화를 논쟁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와 같은 건설적인 단어를 사용해보자. '하지만'은 상대방의 말을 반격하는 의미로 갈등을 깊게 하고, 적대감을 낳는 반면 '그리고'는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굳건히 해주는 단어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예방하고, 공감을 이끌어낸다. "문서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하지만 여기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보다 "문서를 훌륭하게 잘 만들었네. 그리고 여기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라고 말하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 3

#### 실제 상황에 근거를 두고 '질문'하라

훈계는 잔소리와 같은 말이다. 훈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극단적인 상황에 단언하는 것보다 질문을 던져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보는 것이다. 예로 지각을 하는 동료 혹은 후배에게 "자네는 늘 지각이지"보다는 "자네는 이번 주 들어 3번이나 지각을 했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와 같이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해 상대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행동을 고쳐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다.

### 4

#### 명령을 부탁으로 바꿔주는 한마디

명령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명령어를 부탁으로 바꿔보면 언어의 온도가 확연히 달라진다. 명령하는 말투는 관계를 사무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차가움을 느끼게 한다. 반면 부탁이나 권유의 말은 상대가 거부감을 덜 느끼고, 의무감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 수 있도록 만든다. 예로 "보고서가 이게 뭐예요? 잘못되었으니 다시 해주세요"라는 말보다 "이 보고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수정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말한다면 상대방도 기분 좋고, 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상대에게 호감을 주는 대화법

#####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세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최대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보여주자. 그것이 대화하는 상대에 대한 예의다.

##### 즐거운 대화는 공감에서 시작해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주면 상대방은 현재의 대화에 즐거움을 느껴 더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질문을 자주 하세요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그 질문을 통해 더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 역시 한층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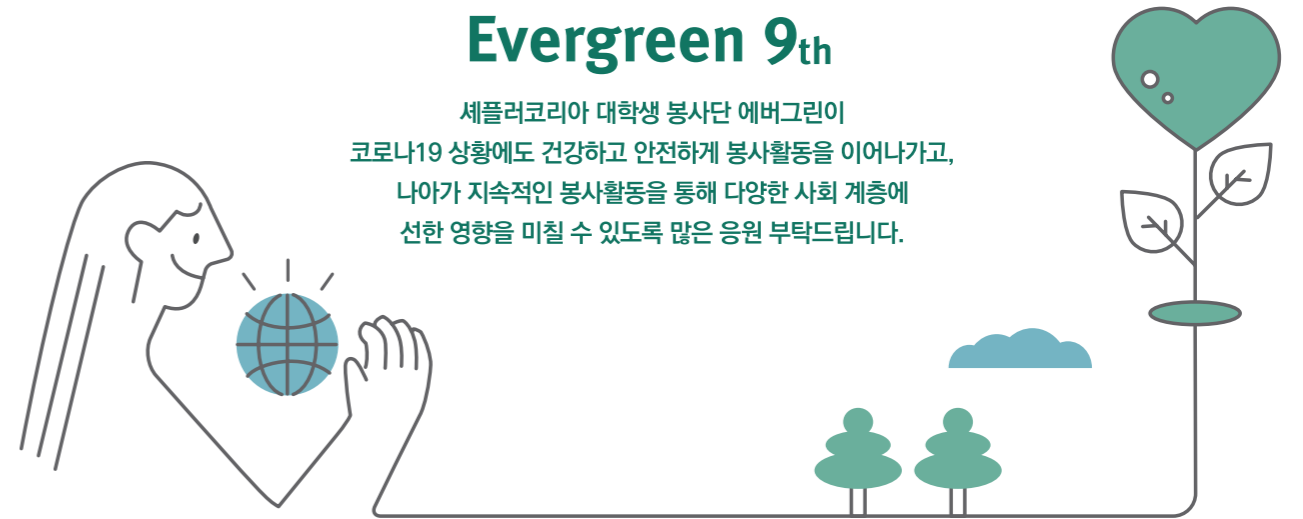
#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에버그린 9기

## 온정 1°C 더하기

에버그린은 세플러코리아의 도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2013년 1기로 시작해 올해 벌써 아홉 번째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벽화 봉사, 장애인 체육 활동, 생수 배달, 연탄 나눔 등을 통해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를 지원해왔습니다. 에버그린 9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열정과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총 15명의 단원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발대식 이후로 벌써 네 차례의 비대면 봉사활동을 실천했는데요. 오늘은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네 차례의 봉사활동을 소개합니다.

# Evergreen 9th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이  
코로나19 상황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나아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계층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룹홈 아이들을 위한 새콤달콤 레몬청 만들기**  
첫 번째 봉사활동인 '그룹홈 아동들을 위한 랜선 레몬청 만들기'는 발대식이 끝난 후, 팀즈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NGO 단체 '함께하는 사랑밭'의 지도 아래, 에버그린 단원들은 각자의 집에서 레몬청을 직접 담갔으며 정성 들여 만든 레몬청은 서울에 소재한 소규모 아동 양육 시설 (그룹홈)의 취약 계층 아동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한 우산 만들기**  
지난 8월 23일, 비대면으로 '아동을 위한 안전 우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반사 스티커로 구성된 안전 우산 키트가 각 에버그린 단원들의 집으로 배송되었으며, 예쁘게 완성한 안전 우산은 꿈과씨앗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습니다. 반사 스티커가 부착된 투명 우산은 비 오는 날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이 운전자의 눈에 띄도록 돕고, 시야를 확보해 아동들의 교통 안전을 지켜줍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버사슬레이트 만들기**  
9월 6일에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버사슬레이트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휴대용 점자 입력기인 버사슬레이트는 점자를 읽고 쓰면서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의 점자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제작했으며, 완성한 버사슬레이트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빛맹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모듬 피클 만들기**  
9월 11일, 팀즈 미팅을 통해 에버그린의 모듬 야채 수제 피클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면역력이 중요한 만큼, 에버그린이 만든 피클에는 각종 야채가 골고루 들어가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득 채워줍니다. 아삭하고 새콤한 수제 피클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오티리아 공동생활가정에 전달했습니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가치 실현

지역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층 밝아집니다. 세플러코리아는 각 사업장에서 이룬 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플러코리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 벽화 봉사, 복지관 배식 봉사, 농촌 일손 돕기, 연탄 나눔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밝은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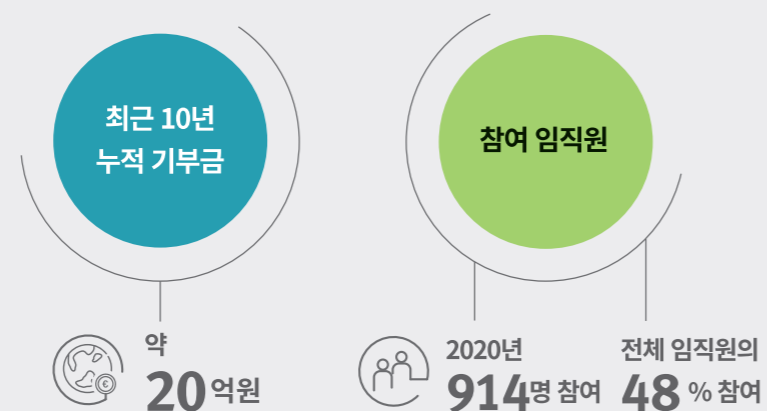
**배식 봉사** 종로복지관의 독거노인들에게 배식 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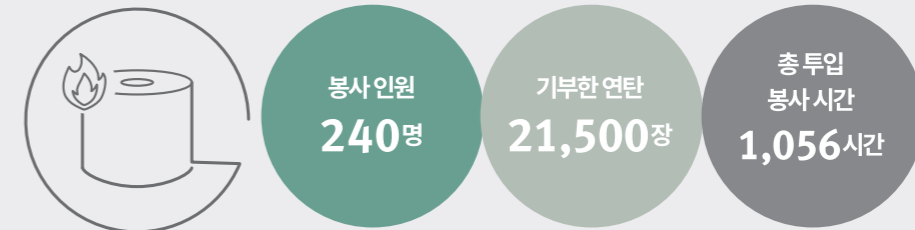
### 매칭펀드

**임직원**  
매칭펀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신청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해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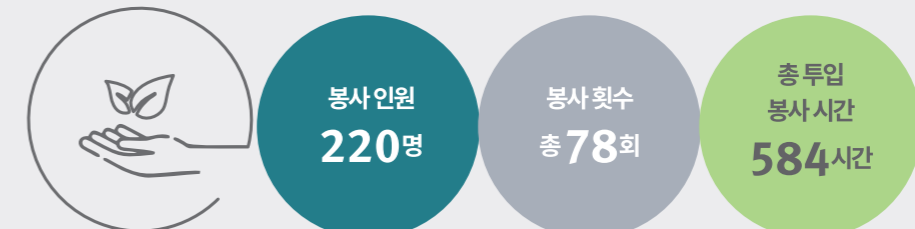
**회사**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기부



**사랑의 연탄 나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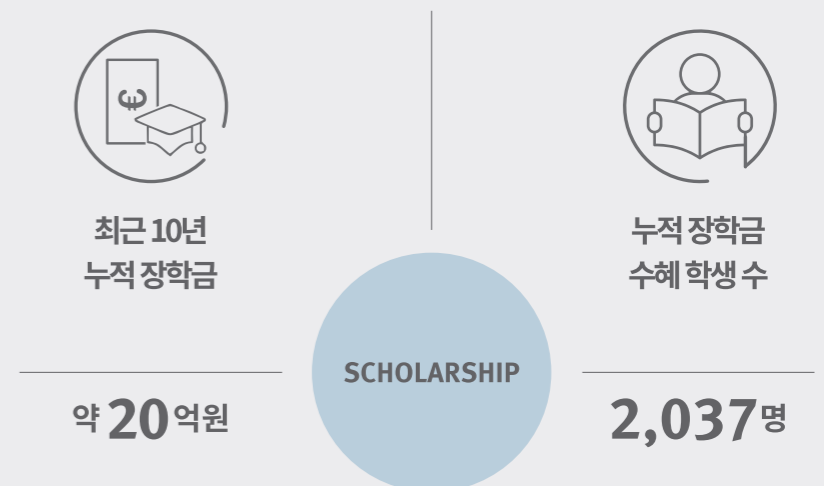


**에버그린** 2003년 시작된 세플러코리아의 대학생 봉사단 에버그린은 국내외를 누비며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장학금 지원

세플러코리아는 2003년부터 우리 사업장이 자리 잡은 창원, 전주 지역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이들을 위해 떠난 오키나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  
아시아 최대의 아쿠아리움과 고래상어가 있는 오키나와로 떠났다.



츠히라우미 수족관

### 다채로운 재미가 있는 오키나와

안녕하세요. 저는 엔진 컴포넌트 BU 영업 김재환 부장입니다. 제가 소개할 여행지는 2019년 2월에 다녀온 오키나와입니다. 이곳은 일본에 속해 있지만 오랜 기간 미군 부대가 주둔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의 전통문화는 제주도와 비슷해 익숙한 듯하지만 다채로운 재미가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 1시간 동안 낚 놓고 바라본 고래상어

오키나와로 여행을 간 이유는 오로지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아쿠아리움과 그곳에 고래상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쿠아리움 방문이 주목적이어서인지 오키나와를 떠올리면 츄라우미 수족관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원통 수조 안에서 헤엄치는 고래상어를 1시간 동안 낚 놓고 구경했거든요. 츄라우미 수족관을 생각하면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한 가지 떠오릅니다. 돌고래쇼까지 보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길이 좁아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큰길을 찾아 마음을 놓았죠. 타지도 아닌 타국에서 점점 산속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아찔했는지 아직도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네요.



김재환 부장  
엔진 컴포넌트 BU 영업

### 특별하지 않아 더욱 특별했던 오키나와 음식

숙소 옆에 단독으로 지은 큰 전통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인지, 식당인지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방문했는데 다행히 식당이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인테리어가 정말 잘 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손님들도 꽤 많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자리를 잡고 앉아 신선한 생선이 올라간 초밥과 개운한 맛이 매력적인 된장국, 우리에게 친숙한 닭날개,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생맥주까지 주문했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저녁 한 상이었지만 아쿠아리움에서의 재미있는 경험과 숙소로 돌아오던 중 산속에서 헤맸던 아찔한 일 때문인지 그날 저녁은 정말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 식당은 지금도 가족들과 오키나와 이야기를 하면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가 정말 맛있었고,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아마 사랑하는 가족과 특별한 경험을 한 후 먹은 저녁이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가신다면 제주도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 국수와 비슷한 국수를 추천합니다. 사실 제주도에서 먹은 고기 국수만큼은 아니지만 제주도를 닮은 곳에서 비슷한 음식을 먹으니 그것 또한 재미있더라고요. 또 아메리카 빌리지 근처에서 먹은 스테이크도 정말 맛있었고, 중국식 라면과 교자도 기억이 나네요.

### 풍성한 추억을 남겨주는 여행의 맛

익숙한 일상에서 탈출해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은 함께한 가족, 친구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행지에서 맛본 음식은 특별함과 추억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보는 것, 느끼는 것까지 먹는 것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여행의 추억을 남겨주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 생각해보면 2019년 2월, 무심코 아이에게 고래상어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방문했던 오키나와가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은 여행이 쉽지 않지만 먼 훗날 지금을 생각했을 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해져서 가족들과 추억을 많이 쌓아줬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사우들과도 보기 쉽지 않은 우울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내고 사우와 지인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을 통해 먼저 안부를 묻고 부지런히 행동하는 세력러인이 되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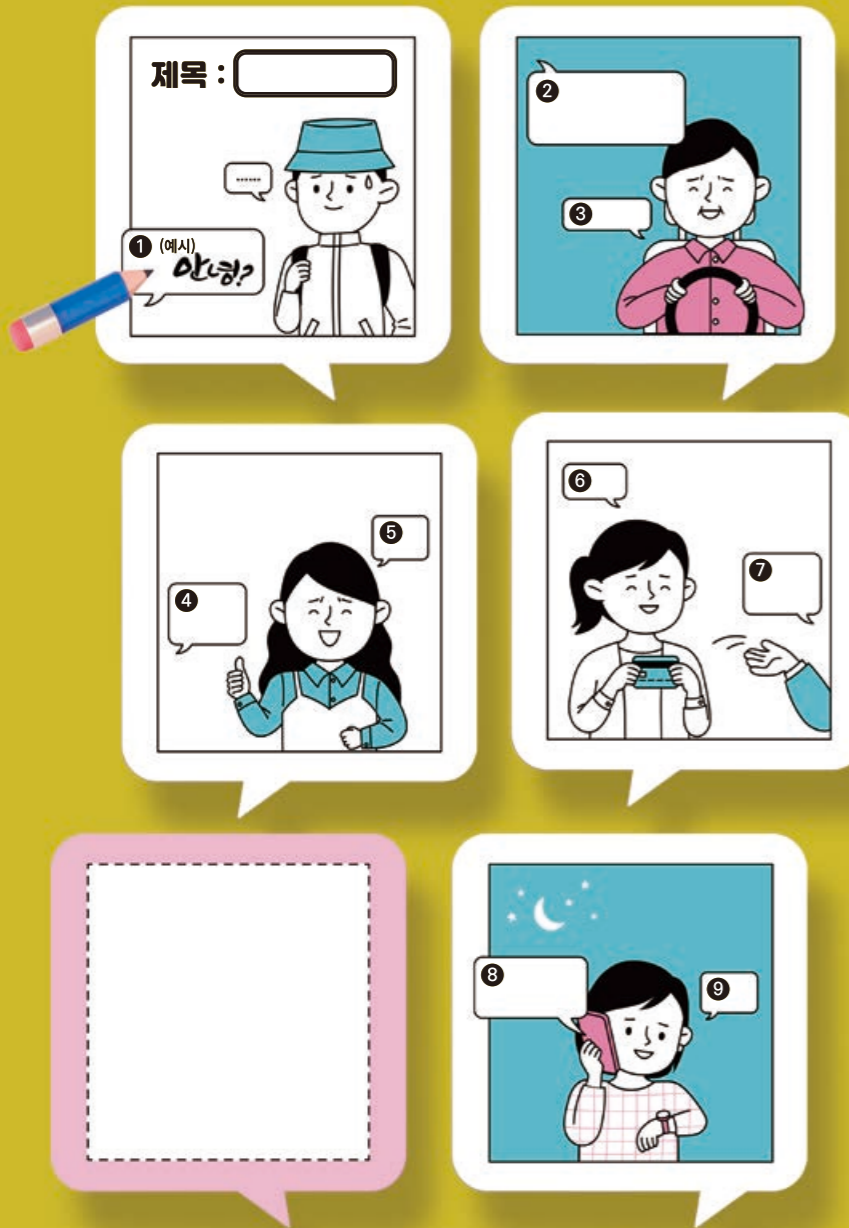


1	2
	3

1. 오키나와 추억의 장소가 된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2. 오키나와 고기 국수
3. 오키나와 코끼리바위 (만좌모)를 배경으로 찍은 가족사진

# 말풍선에 담긴 상상력

세플러코리아 임직원의 풍부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었던 말풍선 채우기 대회. 손수 그림을 그린 최우수상부터 영업사원의 하루를 보여준 참가상까지, 임직원의 다양한 상상력을 소개합니다.



〈세플러+원〉은 2021년 Winter호를 통해 임직원 및 가족에게 6컷 만화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응모해주셨고, 올 한 해 동안 수상작 및 훌륭한 작품들을 사보에서 소개합니다.

- 수상자 안내**
- 최우수상**  
 안산 엔진컴포넌트 BU 엔지니어링  
 김성완 수석연구원 자녀 김효원
- 우수상**  
 서울 새시시스템 BD 영업 민광운 차장  
 연구소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국내 엔지니어링 하병훈 과장 조카 방솔희
- 장려상**  
 안산 설비보전 유갑수 과장 자녀 유혜인  
 서울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이겨래 과장  
 창원 툴센터 백명곤 사원 자녀 백민지
- 크리에이티브상**  
 연구소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해외 엔지니어링 이석훈 부장 자녀 이영서



**방솔희**  
 창원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국내 엔지니어링 하병훈 과장 조카

**“건강한 삶으로 Begin Again”**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건강해야 학교도 즐겁게 다니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6컷 만화를 완성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곰곰이 생각했었어요. 이때 ‘건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주제를 만화를 완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항상 건강이 최고라고 말씀해주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 뉴스 하이라이트

세플러코리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세플러+원>에서 세플러코리아의 소식을 모아 소개합니다.

## 세플러코리아, 9년 연속 'GM 품질우수상' 수상 대기록

세플러코리아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사로부터 올해 9년 연속으로 'GM 품질우수상(GM Supplier Quality Excellence Award)'을 수상했다. GM의 품질우수상은 전 세계 부품 공급사들의 개별 공장에 대한 평가 및 시상 제도로, 이전 연도(2020년) 6개월~12개월간 무결점을 유지한 사업장 중 GM의 엄격한 품질 및 납기 기준을 준수한 공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세플러코리아는 GM에 공급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창원, 전주, 안산 3개 공장 모두가 올해 이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으며, 회사 차원에서는 지난 2012년 이후 9년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3개 공장이 동시에 GM 품질우수상을 수상하기는 지난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세플러코리아는 창원과 전주, 안산공장에서 생산한 테이퍼 롤러베어링, 워터펌프 베어링, 피니언 핀 등 자동차용 고정밀 핵심 부품을 GM사에 공급해왔으며, 올해 3개 공장의 동시 수상을 통해 무결점 품질관리와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세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는 "GM 품질우수상 9년 연속 수상은 세플러코리아의 품질관리 수준이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합심하고 노력해 제품 품질과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산, 전주, 창원 사업장



## 세플러그룹, 올 상반기 매출 27.4% 큰 폭 증가

세플러그룹은 2021년 상반기 매출이 70억 1,400만 유로를 기록해 지난해 (55억 7,200만 유로) 대비 27.4% 증가했다고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세플러그룹의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 부문은 43억 6,500만 유로의 실적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9%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오토모티브 애프터마켓 부문의 매출이 9억 1,100만 유로로 24.2% 증가하고, 산업기계 부문도 13.3% 증가한 17억 3,800만 유로를 달성하면서 실적 증가에 한몫을 했다. 상반기 매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세플러그룹은 최근 2021년도 연간 전망치를 전년도 대비 11% 초과 달성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플러그룹의 CEO 클라우스 로젠펠트(Klaus Rosenfeld)는 "2/4분기를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간 목표치를 다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 자신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남은 기간 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플러 '로드맵 2025'에 따라 전략 실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세플러그룹, '아레나 2036' 혁신 네트워크 동참

독일 초대형 산학연 네트워크 '아레나2036(ARENA 2036)'에 합류, 과학 및 산업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 선도적인 생산 기술의 연구 개발에 나선다. 아레나 2036은 미래 모빌리티에 중점을 둔 독일 산학연 공동의 혁신 연구 개발 플랫폼으로, 세플러그룹의 '로드맵 2025' 전략 프레임워크에서 핵심적인 요소다. 세플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 안전 개념 및 유연한 핸들링 솔루션, 지능형 머신 네트워크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조기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산 공장과 기계의 디지털 방식 통합, 직원의 디지털 협업 및 최첨단 IT 시스템 활용 등 미래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팩토리에 주목하고 있다. 아레나 2036은 독일 자동차 산업 150주년이 되는 2036년에 맞춰 차세대 자동차를 위한 연구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Active Research Environment for the Next Generation of Automobiles in 2036)는 취지에서 2012년 시작되었다. 현재 자동차 산업, 항공 우주, 섬유 및 소재 등 50여 개의 독일 내 기업 및 연구 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 자동차 산업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슈투트가르트대학교 캠퍼스에 자리하고 있다.





### 세플러그룹, 네덜란드 '베가(BEGA)' 인수

세플러그룹이 롤링 베어링의 장착 및 해체용 특수 툴(Tool) 분야 선두 기업인 네덜란드의 '베가(BEGA International B.V.)'사를 인수했다. 금번 인수를 통해, 세플러는 롤링 베어링을 비롯한 일부 구동장치 부품의 경우 제품 공급부터 유지 보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솔루션까지 일원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과 파트너사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베가(BEGA) 또한 세플러의 OPTIME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용으로 만든 산업 사물인터넷(IIoT)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의 지능형 유지 보수 툴의 성능과 기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게 되는 등 세플러의 베가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베가는 롤링 베어링과 기타 구동 부품의 장착 및 해체용 특수 툴 제조 분야의 선두를 달리는 기업으로 풍력, 철도, 광업, 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세플러, 세계적인 전시회 EMO 2021 및 IAA 2021 참가

세플러그룹이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전시회 중 하나인 'EMO 2021'에 참가해 공작기계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선보였다. EMO 2021은 '금속 가공의 매직월드'라는 주제로 이탈리아 피에라 밀라노 전시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세플러그룹은 ▲ YRTCMA 회전 테이블 베어링 ▲ RUE 계열 리니어 순환식 롤러 베어링과 제6세대 가이드웨이 어셈블리 'RUE-F' ▲ 메인 스피들 변위 측정용 '스핀들센스' 시스템 ▲ 이송축용 '듀라센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출품해 공작기계 디지털화의 개척자로서 세플러의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한편 세플러그룹은 독일 뮌헨에서 개막한 IAA 모빌리티 2021에 참가해 E-모빌리티 관련 혁신 기술 역시 선보였다. 세계 최대 모터쇼 중 하나인 이번 전시회에서 세플러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향해(On Track to Sustainable Mobility)'라는 모토 아래 ▲ 전기 액슬 애플리케이션용 800V 전력전자 시스템 ▲ 전기모터, 변속기, 전력전자 장치가 한 시스템에 결합된 3 in 1 전기 액슬 ▲ 전기차(EV) 통합 열관리 시스템 등 E-모빌리티 신기술을 대거 출품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Thanks & Quiz

### 기자단

#### 사보 기자단

- 서울 박지수 대리, 김유정 대리
- 창원 기대환 부장, 손강우 사원
- 안산 정배근 대리
- 전주 조규완 대리, 최규철 사원
- 연구소 김현용 선임연구원

#### 사보 담당자

-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 민유정 차장, 주윤선 대리

### 퀴즈 1

'추억의 재구성'에서 소개한 조병성 기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 퀴즈 2 - 난센스 수학 퀴즈

직선을 하나만 그어 올바른 식을 만들어보세요. 단, 등호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5+5+5=550$$

### 지난 호 당첨자 명단

#### 퀴즈 1

- 서울 이광렬 (HR서비스)
- 안산 조도희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안산) 안철성 (엔진부품 세그먼트)
- 창원 우진철 (소형중형롤베어링 세그먼트) 신승수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한지환 (한유동 자녀)

#### 퀴즈 2

- 서울 이선중 (Customer Service Industrial) 유인영 (Business Development Automotive Tech.)
- 안성 황장호 (안성물류)
- 전주 이정윤 (품질보증 전주)
- 창원 주중욱 (선삭 세그먼트) 조민호 (설비보전 창원) 기대환 (HR창원)

사보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jooyun@schaeffler.com

#### 보내실 때

코너 제목/ 이름/ 소속/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응모 마감

11월 30일까지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로 보내주세요.

#### \* 문자 보내기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담당자 메일을 넣어 전송

# 셰플러 CONCEPT1 - 자동 윤활의 시작



## CONCEPT1 - 싱글 포인트 자동 윤활 장치

베어링의 약 70~80%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재윤활되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작업 시 윤활양 조절에 실패하거나 윤활 시점을 놓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윤활부를 통해 들어가면 조기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CONCEPT1 을 통해 유지 보수 비용은 줄이고, 설비의 서비스 수명을 늘려보세요.

(문의) 02 311 3743 / [industry4.0\\_korea@schaeffler.com](mailto:industry4.0_korea@schaeffler.com)  
[www.schaeffler.com](http://www.schaeffler.com)

**SCHAEFFLER**